

중학교 역사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에 대한 질적 연구¹⁾

박 미 란(광장중학교 교사)*

박 현 숙(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역사(상) 교사 집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집필이 본격화되기 전 '전문가로의 진입', '이상적인 교과서에 대한 꿈의 현실화'라는 막연한 역할 기대를 하며 설렘을 느꼈다. 이후 본격적인 집필 활동 속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맥락 있는 서술하기', '교실 현장 담기', '아이들 마음 읽어내기' 등의 구체적 행동으로 교과서를 디자인해 갔다. 그러나 교사 집필자들의 역할은 제약과 한계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제약과 한계의 원인은 전문성의 한계에 있기도 하였고, 출판사의 상업성과 교육과정의 규정성 등에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사 집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스스로의 역할을 '교수 집필자를 보완하고 출판사 조력을 받으며 현장을 반영하는 대변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학문적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역할 구현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역할 구현을 방해하는 제약과 한계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후 더 좋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수 집필자와 출판사 편집자들과의 면담이 배제되었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대한 현장 반응을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역사교과서 제작과 검정 과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역사 교과서, 교사 집필자, 질적 연구, 집필 과정에서의 인식, 중학교

1) 이 논문은 박미란(2012)의 석사학위 논문인 '역사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hspark@korea.ac.kr

I. 머리말

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적 요구, 교육과정, 역사학과 역사교육 학계의 연구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필자의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구성의 핵심에 집필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집필자의 의도와 역할 인식, 그리고 역할의 구현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연구가 다른 교과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기 사회 교과서 편찬과정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거나(박인옥, 조국남, 최정윤, 최유리, 2000),²⁾ 사회교육과 교수로서 사회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이혁규, 2005).³⁾ 또한 체육 교과서 구성과 관련된 교사 및 교육과정 개발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체육 교과서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김원정, 2008).⁴⁾ 선행 연구들은 교과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교과서가 구성되는 방식을 알아보아 교과서 집필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로 새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그 가운데 역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3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7로 간행되었다.⁵⁾ 새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철학을 유지한 채 부분 개정되었지만, 역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는 큰 폭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역사'가 다른 사회과 과목과 분리되어 독립 과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와 세계사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역사'라는 과목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아가 새롭게 탄생한 역사(상)·(하)는 2007년 6월에 발표된 '양질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검정제가 적용되었다.⁶⁾ 이에 따라서

2) 박인옥 외 3인(2000). 제7차 사회과 교과서 편찬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편찬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인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1.

3) 이혁규(2005). 교과서 쓰기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8(1).

4) 김원정(2008). 체육교육과정의 해석을 통해 본 체육교과서 구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과정.

6) 7차 교육과정부터 세계사가 포함된 중학교 사회 1, 사회 2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가 이미 검정제로 전환되었지만, 국사는 여전히 국정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발표된 '양질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정도서였던 중학교 국사 영역도 검정도서로 전

민간의 교과서 개발이 활성화 되었고, 집필자 역시 증가하였다.

집필자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은 역사교과서를 편찬할 때에는 주로 교수들이 집필진을 이루고, 교사들이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007년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검정 도서는 다수의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⁷⁾고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 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속하는 국사, 사회 1, 사회 2 집필진과 비교했을 때, 역사(상) 교과서⁸⁾ 집필에 참여한 현장 교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⁹⁾

역사(상) 집필에 참여하는 교사의 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은 검정제로 인해 집필진의 수가 확대된 것도 있지만, 교사의 참여가 역사 교과서 집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역사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막연하게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교과서 작업을 위한 교사 집필자 참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역사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 확대가 가져 오는 교육적인 측면을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역사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역사 교사들의 체험을 연구함으로써 교사 집필자의 역할과 그 구현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사 집필자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교과서에 주는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환되었다.

- 7)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p. 2.
- 8) 본 연구가 진행된 2011년 6월~10월 역사(하)는 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교과서 집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상권을 집필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 하권도 집필하였으므로 그들의 역할과 인식은 역사(상)과 역사(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 교과서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다.
- 9) 제 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 역사(상) 집필진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7차 교육과정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	
	국사		사회 1·2 ¹⁾		역사(상)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교수	7	70	33	63	31	36
교사	3	30	17	<u>33</u>	55	<u>63</u>
기타 ¹⁾	·	·	2	4	1	1
전체	10	100	52	100	87	100

역사교과서 제작과 검정 과정에 시사점을 주었으면 한다.

Ⅱ.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역사(상) 집필에 참여한 역사 교사의 역할과 그 구현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즉, 교과서 집필자의 의도와 생각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내면에 있는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는 질적 연구 방식을 취하였다.¹⁰⁾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 안에서 역사(상) 집필에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과 교사 집필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면담

5명의 연구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1인 당 2회(1차·2차), '역사 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과 인식'을 주제로 하여 반구조화 된 질문을 통해 60~90분 정도 진행하였다. 1차 면담 을 하면서 연구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공통 질문뿐만 아니라 1차 면담의 내용을 분석한 후 연구 대상자별로 차별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2차 면담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의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면담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 중 1차·2차 면담의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몸짓이나 표정은 별도로 기록하여 현장감을 더하였다.

면담을 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연구 현실에서 우려감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에서 면담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란 지식을 추구하는 전문적 대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 수집 방법 차원이 아닌 지식의 출처로서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이다.¹¹⁾ 왜냐하면 면담은 인간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¹²⁾

10) 김윤옥 외 8인(2009). 질적 연구 실천 방법. 교육과학사, 24-29.

11) 공병해, 박순애(2009). 질적 연구 인터뷰에 대한 철학적 배경. 질적연구 10-2, 77-78.

12) Irving Seidman(박혜준, 이승연 공역)(2009).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33.

연구 대상자와의 면담 속에서 추가로 확인할 정보가 담긴 기록물이 있으면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원고 집필 일정표, 내용 요소 선정에 위한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¹³⁾ 하지만 편집 노하우가 담긴 회의자료 등의 구체적인 기록물은 출판사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3. 연구 대상자 선정

역사(상) 교사 집필자 55명 가운데 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할당 선택 전략’에¹⁴⁾ 의거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역사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용을 준거로 삼아 교과서 저자들을 분류한 후, 각 군별로 1~2명씩 잠정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1〉 준거지향적 선택의 할당 선택 전략을 이용한 연구 대상자 선정

1차 기준 소속 학교급	2차 기준 단원별 집필 방법 ¹⁵⁾	3차 기준 집필 영역	군	잠정적 연구 대상자	최종 연구 대상자
중학교 교사	개별 집필	한국사	가	①, ②	② (최교사)
		세계사	나	③, ④	•
	공동 집필	한국사	다	⑤, ⑥	⑤ (김교사)
		세계사	라	⑦, ⑧	•
고등학교 교사	개별 집필	한국사	마 ¹⁶⁾	⑨, ⑩	⑨ (권교사) ⑩ (신교사)
		세계사	바	⑪	•
	공동 집필	한국사	사	⑫	•
		세계사	아	⑬, ⑭	⑬ (박교사)

13) 김교사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분석을 토대로 한 내용 요소 선정 준비 회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박교사는 목차 및 내용 요소 선정 회의 자료, 원고 집필 일정표, 만들고 싶은 역사 교과서에 대해 쓴 글을 제공하였다.

14) 김윤옥 외 8인, 앞의 책, pp. 68-69. ‘할당 선택 전략은 준거 지향적 선택의 하나이다. 준거 지향적 선택이란 연구자들이 미리 연구의 각 단위들이 가져야 할 특성의 목록 또는 충족시켜야 할 일련의 준거를 설정하도록 한다. 그 후 연구자는 구체화된 특성에 부합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다. 즉, 의도적 표집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할당 선택 전략은 연구자가 어떤 모집단의 주요 하위 집단을 확인하고, 각 범주에서 임의로 몇 명씩 참여자를 선정해 나가는 것이다.’

15) 역사(상)은 대단원별 저자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단원 별로 명시된 저자를 보고, 각 대단원의 저자가 한명인 경우를 개별 집필이라 칭하였고, 각 대단원의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공동 집필이라고 하였다.

16) 위의 〈표〉에서 ‘마’군의 최종 연구 참여자가 두 명으로 선정되었다. 원래 ‘바’군의 잠정적 연구 참여자

군별로 잠정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급적 출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총 14명의 잠정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다섯 명의 교사 집필자들은 모두 교과서 집필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을 처음으로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하였을 것이다. 최종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김교사

중학교에 재직 중인 25년 경력의 교사로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여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역사 연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중·고등학생용 대안교과서 한국사 부분을 집필하였다.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는 처음이지만, 집필자 가운데 연령이 많아서 리더 역할을 해나가며 집필 과정을 이끈 적극적인 교사이다.

◦ 권교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20년 경력의 교사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문제집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원고 검토 회의 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 검토 집필회의를 참지 못하는 동료 집필자들을 품으며 끈기를 가지고 역사 교과서 집필을 완료하게 된다.

◦ 박교사

중학교에서 4년을 재직하다가 고등학교로 옮겨 8년의 경력을 쌓은 교사로 ○○교육대학원에서 서양사를 공부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교과서 집필 참여 이전에 역사교과서나 문제집 제작 경험은 없지만, 역사교육 관련 학술 대회에 참여하는 등 역사 교육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라는 학문의 특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새로운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실제 집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 최교사

중학교 교사로 22년의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해 석

사 연구 참여에 동의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포기한 연구 참여자의 추천으로 '마'군의 연구 참여자가 한명 추가되었다. 이미 연구 참여자 섭외가 끝난 후의 상황이었고, '마'군에 속한 교사 집필자들이 가장 많았기에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과거 사회 교과서 심의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교육과정 해석의 감각을 키웠고, 문제집 집필에도 참여하였다. 교무부장의 보직을 맡으면서도 교사 대상 연수에서 강의를 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신교사

고등학교 교사로 14년을 재직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집 집필 등의 경험은 없지만, 외국의 역사 교재 번역 등 역사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녹음한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해 문서화하였고, 이를 '1차 면담 자료', '2차 면담 자료'라고 칭하였다. '면담 자료'는 면담을 하면서 본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괄호 넣기 형태로 제시하여 함께 정리하였다. 정리된 면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식을 교사 집필자의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연구의 취지가 교사 집필자의 역할과 구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몇몇 집필자를 연구 대상으로 표집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대상자, 교사 집필자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둘째, 면담의 주제는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 양상이었지만 실제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집필의도가 많이 드러났다. 집필 의도를 반영하고자 애쓰는 것이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 집필자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집필 의도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면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나간 과정이다.¹⁷⁾

〈표 2〉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방법	관련 파일 ¹⁸⁾
1단계	'면담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단어와 문장에 줄을 그어 표시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나 의문 사항을 '면담 자료'의 빈 공간에 메모한다.	1차면담자료 (60쪽)

17)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영천(1997). 네 학교 이야기: 한국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문음사.

John W. Creswell(200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학지사, 186-187. Corbin과 Strauss(1990)가 고안한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방법인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의 분석 방법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단계	분석 방법	관련 파일 ¹⁸⁾
2단계	'면담 자료'의 밑줄 친 부분과 메모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읽으며, 범주화·개념화한다.	▶ 2차면담자료 (57쪽)
3단계	1·2 단계를 통해 범주화·개념화 된 내용을 자료 분석 노트에 정리하여 서술한다.	▶ 자료 분석 노트 (1·2차, 총 52쪽)
4단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범주화, 개념화 작업을 컴퓨터 파일로 정리한다.	▶ 최종 자료 분석 파일 (37쪽)

5. 연구의 타당성과 제한점

질적 연구는 개별 연구 대상자가 연구의 도구가 되므로 그들의 안목에 의지하는 연구이다. 또한 연구 절차가 양적 연구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며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P. Lather, 1986)가 제안한 연구 참여자의 결과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¹⁹⁾ 그리고 연구 결과를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공개하여 검증을 받았다.²⁰⁾

질적 연구에 있어서 타당성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연구 윤리의 문제이다. 연구자가 지켜야 할 다양한 연구윤리들이 추천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허락에 의한 연구 참여'와 '참여자의 신분비밀 유지'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잠정적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교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여줌으로써 연구의 목적,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신분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였다.

본 연구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역사(상)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위해 제출된 때는 2009년으로 연구의 시기가 교과서 집필 작업 기간과 다소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교사 집필자의 경험이나 느낌이 당시의 상황과 다르게 기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으로써 본인의 경험을 보다 객관화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찰을 통해 본 교사의 역할이 아닌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교사 집필자의 역

18) 관련 파일의 분량은 A4 용지의 글자 크기 10 포인트 기준이다.

19) 김영천, 앞의 책, 1997, pp. 47-49에서 김영천도 '질적 연구에서 해석의 타당성은 얼마나 연구자가 참여자의 삶과 의미구조에 가깝게 접근했느냐에 있기 때문에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참여자가 연구자의 해석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20) 연구 참여자들에게 e-mail로 연구 결과를 전송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러한 반응은 본 연구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할과 역할 구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유념하며 논지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Ⅲ. 교사 집필자로서의 역할 기대

역사 교과서 집필 제의를 받은 연구 대상자들은 교과서 집필에 대한 의미 부여와 고민의 시간 속에서 교사 집필자 역할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러나 교사 집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1. 역사교육 전문가로의 진입

연구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역사 교과서 집필을 ‘교사인 내가 언젠가 해야 하는 자부심어리고 자연스러운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교과서 집필을 하면서 학교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자신의 전문성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책 집필 작업을 하면서 교과서도 언젠가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기쁜 마음이었어요. ... 교과서가 출판된다는 것 자체가 좋았죠. [김교사, 1차 면담]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내 교육 경력을 담은 텍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 [최교사, 1차 면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 교직 경력 20년이고, 교과서 검정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를 쓸 텐데 ... 교과서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경험상으로도 좋고. [권교사, 1차 면담]

2. 이상적인 교과서의 실현

교사 집필자들은 집필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나름대로 만들고 싶은 교과서를 그리며 이상적인 교과서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란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 ‘학생에게 외면받지 않는 교과서’였다.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 애들이 역사 이야기

를 재미있어 하는 것이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그런데, 여기는(기존 교과서) 사람이 없잖아요. ... 주인공이 뭐냐면 나라예요. ... 조선 왕조는 뭘 했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나마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재미있어 해요. ... 그 시대를 살면서 이런 고민을 했고, 시대와 사람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

[최교사, 2차 면담]

나아가 박교사와 신교사는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친절한 교과서’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인식하는 친절한 교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친절하고 쉬운 교과서’는 인물과 이름(사건, 지명 등)에 대한 해석 코너를 단원마다 고정적으로 삽입. 단원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의미와 이유를 언급하는 것이다.²¹⁾

[박교사, 기록물 자료]

응집성 있는 글이 친절한 교과서다. 앞뒤가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신교사, 2차 면담]

박교사는 어려운 용어에 관한 친절한 설명, 학습의 흐름에 대한 친절한 안내의 의미로 ‘친절한 교과서’ 개념을 사용하였다. 반면 신교사는 본문 서술에 있어서 사건을 낱말의 것으로 서술하지 않고 응집성 있게 맥락적으로 서술한 교과서를 ‘친절한 교과서’로 생각하고 있었다.

IV. 교사 집필자로서의 역할 구현

연구 대상자들은 학교 업무와 병행하면서 교과서 집필 시간을 마련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집필에 몰두하였다. 그들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고 현장에 뿌리를 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다른 집필자의 부족한 역량까지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집필 작업은 흡사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의도를 반영하여 교과서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였다.²²⁾ 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때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수 집필자들과 달리 현장을 고려한 학사 일정과 수업 시수였다. 교사 집

21) 박교사는 역사(상) 집필을 시작할 때, 만들고 싶은 역사 교과서를 주제로 A4 용지 두 쪽 분량의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을 본 연구를 위해 제공해 주었다.

22) 양정현(2009). 역사 교과서 제도: 역사의 지식 생산, 유통, 소비의 매커니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에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하는 것을 ‘교과서 디자이너’라고 표현하였다.

필자의 구체적인 역할 구현은 다음과 같다.

1. 쉽고 맥락 있게 서술하기

교과서 내용을 이끄는 주축은 본문으로 교과서 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본문 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인식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본문은 '학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은 '단어의 수준'과 '내용의 인과 관계'를 고려하였다.

저에게 많이 물어본 것이 중학교 수준에 알맞은 용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가 하는
... [최교사, 1차 면담]

본문을 학생들이 읽기 좋게 썼어요. ... 저는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 단어 설명을 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김교사, 2차 면담]

인과관계에 맞게 쓰자. ... 서술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까. ...
[신교사, 1차 면담]

단어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역사적 개념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함을 의미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다. 김교사는 가능하면 어려운 단어를 본문에 풀어서 서술하였고, 다른 참여자들은 교과서의 빈 공간을 이용해 주석을 달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집필자의 글이 너무 어려울 때 교사 집필자들끼리 모여서 윤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 집필자들이 섬세하게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교과서의 내용을 매개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단어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준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학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요소가 많은 역사 교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내용 요소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나열될 때 학생들은 역사를 어렵게 여기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내용 요소들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서술, '인과 관계를 고려한 서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연구 대상자가 두 가지 차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어의 수준'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약간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과 관계'에 맞는 서술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인식하였다. 다만 신교사만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본문 텍스트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즉, 역사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내용 요소의 취사선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들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집필 기준에 언급된 내용이나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등을 거의 빠짐없이 서술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교과서 내용 요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교사 집필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 통과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교과서 집필 기준에 얽매는 경향이 있었다.

2. 학생들 마음 읽어내기

학교 현장의 아이들에게 ‘교과서는 어렵고 매력이 없는 책’이고,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인 경우가 많다. 역사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가독성이 낮은 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 집필자들은 교과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도입부, 시각 자료, 보조 자료를 구성하였다.

7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에는 없고, 사회 1, 사회 2 교과서에는 있었던 장치가 도입부이다. 도입부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모든 연구 대상자가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박교사는 대중문화에 스며있는 역사를 고려하여 흥미 유발 자료를 선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최근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각 단원 도입 부분은 흥미 유발을 위해 관련 영화, 만화, 일화 소개(대중문화에 스며있는 역사)로 시작하고,
[박교사, 기록물 자료]

또한, 역사는 과거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역사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은 시각 자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시각 자료를 가독성을 높이고 역사를 구체화시켜주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사진, 도표, 그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거나 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편집부에게) ‘이 이미지 구현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고려 ○○○ 이미지를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요구했죠.

[신교사, 2차 면담]

역사 교과서에 시각 자료를 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은 사진과 도표가 풍부하게 나와 있는 대중서를 탐독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적절한 것을 고르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사료를 반영하여 역사적 상황을 삽화로 그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해 교과서 곳곳에 배치하여 교과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게 만들었다.

시각 자료를 교과서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의 조력이었다. 이미지 작업은 철저하게 편집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편집진의 조력에 대체로 만족하였지만, 디자인 감각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들도 있었다.

출판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좀 더 소프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과서가 좀 무거워요.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최교사, 1차 면담]

연구 대상자들은 시각 자료와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로 보조 자료를 꼽았다. 그들이 인식하는 교과서의 보조 자료는 읽기자료, 심화학습, 수행평가 과제 등 다양하다. 보조 자료는 본문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학습자의 역사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보조 자료의 유형을 간략히 하고 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법에서부터 보조 자료의 유형을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잡다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다양한 요소를 넣었어요. ... 읽기 자료의 의미를 읽기자료, 세계사 만나기, 역사 인물 만나기, 숨은 역사 찾기 ... 전체 대단원별로 한두 개씩 ... 역사 탐방기를 넣었어요. ... 교과서를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어느 장소에 어떤 유물이 있고, 어떻게 가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안내하려고. ...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해석이고 재미있는 놀이다.' 라는 추리의 과정을 넣기 위해서 특색 코너로 역사 추리를 넣고 ...²³⁾

연구 대상자들은 교육과정의 목적을 구현하고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대중서적 등을 참고하면서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교사는 자료를 활용할 때 반드시 내용을 검증하는 철저함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 대상자들은 내용 검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교실 현장 담아내기

실제 교실 현장에서 역사 교과서는 교사의 강약 조절에 따라 활용된다. 즉,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활동하게 하는 내용 요소와 생략되는 내용 요소가 있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23) 연구 참여자를 밝힐 경우,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본문이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비롯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집중해서 탐구활동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교실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 탐구활동이다.

각자 전해는 달랐지만, 연구 대상자들 역시 탐구활동이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과서의 기본 요소이며, 다양한 방식의 탐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듯이, 연구 대상자들은 탐구활동의 목적성에 대한 논의보다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탐구활동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실제 교실 현장을 담아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적극 활용되는 교과서를 집필하려는 것이었다.

(탐구활동을 만들 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애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 시간 안에 너무 어렵게 고민하면 힘들고, 생각의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탐구활동을 만들자.) ... ‘~을 찾아보자’ 이런 것도 간혹 있지만 바로 쪽 읽으면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김교사, 2차 면담]

수업시간에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상상해서 해보자’는 등 역사에서 그동안 감정이입을 강조했지만, ‘롤 플레이’를 준비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상상하라고 하는데 뭘 상상할 수 있겠어요. ...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배제해야죠.

[신교사, 1차 면담]

연구 대상자들은 수업 현장을 넘어선 탐구활동은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별도의 자료 조사 과정이 있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탐구활동을 말한다. 역사교육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에 집중하여 탐구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충실히 전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감히 이론과 교실 현장의 적당한 조율을 시도한다. 연구 대상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습자의 사고력을 자극하되 과하지 않은 탐구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4. 집필 회의 감당하기

연구 대상자들은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의도를 반영한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교과서 집필 작업은 계속되는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²⁴⁾ 집필 회의에서는 집필자별 단위 배분, 교과서 체제 결정, 소단원별 내용 요소 정리, 탐구 활동 제작, 역할 분담 등 교과

24) 박교사가 참여한 출판사의 경우에는 회의를 최소화한 작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회의와 관련한 내용에서 박교사는 배제되었다. 하지만 박교사가 속한 출판사 역시 처음 교과서의 체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집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정하였다. 또한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정제, 사실의 오류 수정, 본문 텍스트 윤문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되었다. 때로는 집필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원고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날아오기도 하고 의견 충돌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때마다 교사 집필자들은 한없이 작아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도 만났던 것 같아요.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고, ... 그 과정에서 못 견디고 나간 사람도 있고.
[권교사, 1차 면담]

검토 회의! 토요일! 아주 무섭다. 두렵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 글이 살 수 있을까?
[신교사, 2차 면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집필에서 회의를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동 작업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과정 자체를 안전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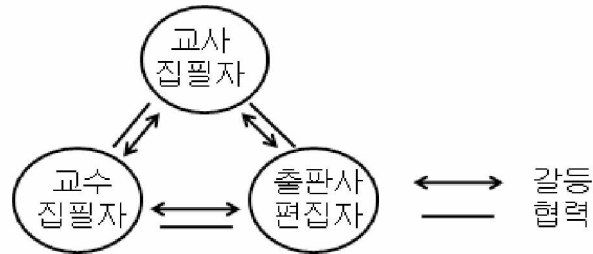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 확실히 여러 사람이 모이면 정선되고 다듬어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장의 오류 같은 것도 분명히 드러나고 ... 초고를 써오면 적어도 네~다섯 명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대체 단어가 없는지 아니면 그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는 ... 문제가 한 번 제기되면, 그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
[최교사, 2차 면담]

연구 대상자들은 교과서 집필 회의와 집필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사 집필자의 역할을 '현장의 대변자'로 인식하게 되었다.²⁵⁾

25)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셋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짧은 질문을 준비하였다. 이 질문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①을 선택하였다.

'선생님께서 역사(상)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보기 중 선생님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 ① 나는 교사 집필자의 역할을 역사(상) 집필 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미리 인식할 수 없었다. 다만,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
- ② 나는 교사 집필자의 역할을 역사(상) 집필 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인식할 수 있었다. 다른 역사(상) 교과서 집필자들과 논의하였기 때문이다.
- ③ 나는 교사 집필자의 역할을 역사(상) 집필 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인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평소 교사의 교과서 집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역사 교과서 집필 주체들의 상호작용

〈그림 1〉과 같이,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주체들은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 속에서 연구 대상자는 ‘교수 집필자를 보완하고, 출판사 편집자의 조력을 받으며 현장감을 반영하는 것’을 교사 집필자의 역할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수업 시수를 계산하여 내용을 구성하며 교과서 삽화를 제안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V. 교사 집필자 역할 구현의 장벽

연구 대상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자신들이 교사 집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던 장벽들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제약과 한계라는 장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과서 집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개인적 차원의 제약 요인이다. 둘째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영향을 받는 외부 요인으로 검정제도, 집필 기준 및 출판사가 있다. 이는 집필의 가이드 라인이자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장벽’이 되어 교과서 집필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1. 전문성의 한계

교사 경험은 교과서 집필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지속적인 연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 연구 대상자들도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글쓰기 능력과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정해진 분량 안에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사실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학생 수준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정이나 집필 기준 및 검정 심사까지 고려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표현에 따라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서술 순서가 사실의 오류가 될 수도 있는 역사학의 특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보고서와 학습지 제작에 길들여진 교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논리적 정합성이 뛰어난 교수 집필자들의 글을 보면서 한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필력의 한계를 많이 느낀다. ... 문장 자체의 논리성이 떨어져서 윤문을 거쳐야하고, 주어 술어가 잘 안 맞기도 하고 ...
[권교사, 1차 면담]

교과서를 집필하는 동안 연습을 통해 필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역사(상) 저자 프로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었다. 연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문성의 부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라는 이유로 깊이 있는 지식의 탐독을 게을리 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서양사를 서술했던 박교사는 한국사 영역을 집필했던 연구 대상자와 다소 다른 차원의 전문성 부족을 토로하였다.

저는 서양사 파트였거든요. 1차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2차 자료들을 나름 최대한 보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글을 써 내려 갔고.
[박교사, 1차 면담]

교사 수준에서 세계사 교과서를 쓰게 되면, 국내에 번역된 흥미 위주의 세계사 책이나 갖다 놓고, 통사는 나온 지 정말 몇 십 년 된 서양사 연구 첫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통사... 그것을 재탕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박교사, 2차 면담]

교사 집필자들은 대체로 연구 동향이나 학술 정보에 있어서 취약한 면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모든 책들을 일일이 읽어서 교과서를 집필하기는 힘들지만, 근래에는 꽤 많은 세계사 책들이 번역·출판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집필을 위한 더 많은 전문 자료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경우 전문성의 한계를 핑계로 익숙한 통사나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답습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들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교과서에 오류를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그래서 집필한 원고를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를 오류 수정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검토 회의가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교사 집필자들은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학문적 전문성에 대한

보완은 교수 집필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수 집필자의 경우 학생 수준을 가늠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교사 집필자의 경우에는 학문적 전문성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집필 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교수 집필자들이 교사 집필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반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재라는 생각에 교수 집필자들도 공감하며,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집필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교수들은 이론적으로 내용 요소나 요즘 연구 경향과 다른 것이 있나 없나를 주로 이야기 하고, 교사들은 이게 중학생들한테 적합한가 아니면 중학생들에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권교사, 2차 면담]

연구 대상자들은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점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판단이 애매할 때에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기존 교과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내용 요소의 선정과 표현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막상 교과서를 서술하다보면, 애매한 것은 예전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국정 교과서이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거니까

[김교사, 2차 면담]

검인정 이전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국정 교과서를 써왔기 때문에 기존의 국정 교과서의 서술과 내용 이런 것을 무시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최교사, 2차 면담]

2007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이 대강화되면서 집필자 스스로 선택해야 할 내용 요소가 많아졌다. 그런데 연구 대상자들은 자유롭게 내용 요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 검정 심사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또한 10년에서 20년이 넘는 동안 교과서를 가르쳐 오면서 교과서의 내용이 정형화된 지식으로 자리 잡은 까닭도 있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은 새 교과서에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 요소를 거의 빠짐없이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 표현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존 교과서를 ‘가이드라인’, ‘바이블’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도 기존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작지만 큰 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집필 작업을 했던 연구 대상자는 그들이 중학생 수준에 맞는 글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교사도 중학교 수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하였다. 결국 고등학교 교사라는 경험의 중학교 교과서 집필에 어려움을 드린 것이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보는 쪽이 넓더라고요. 더 많이 아는 면도 있고. 그렇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교사, 1차 면담]

고등학교에 있었더니 수준을 못 맞춘 부분들이 있었어요. 글을 써봐도 중학생한테까지 언급 안 해줘도 될 용어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박교사, 1차 면담]

이는 중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당연한 차이인 것 같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들은 소속 학교급에 따라서 중학교 교과서 집필을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사 집필자와 고등학교 교사 집필자가 차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사 집필자는 지금 써야하는 중학교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배워야하는 교과서의 깊이를 아니까. 전체 그림을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박교사, 2차 면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원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 그런데 중학교는 원 자료에 대한 고민은 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중학교에 쪽 있다 보니 중학교 학생들에 맞게끔 사고를 하고 아이들 수준에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까 고민을 하니까 ... [최교사, 1차 면담]

3. 부족한 집필 시간

하루에 평균 4~5 시간의 수업을 하고 자신이 맡은 보직을 소화해 내려면, 학교에서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집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은 휴일에 출판사에서 회의를 하고, 주중에 밤늦게까지 교과서를 집필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일과 교과서 집필을 병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교과서의 질을 더욱 높이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

학교 일이라는 것이 아침 출근부터 퇴근하고 나서까지 신경써야하는 일이 매일매일 터지잖아요. 중학교는 더 심하죠? 결국 교과서 일은 내 본업이 아니니까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으로 봐서는 교과서 집필이 중요한 일이에요. [박교사, 2차 면담]

시험출제 때 느끼는 어려움, 업무 강도나 필요도보다 이게(교과서가) 더 크잖아요. ... 그렇다고 학교에 양해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 병행할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

[최교사, 1차 면담]

4. 교육과정과 검정제도의 칼날

2007년 개정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보다 규정성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규정성은 집필자들에게 강력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특히, 연구 대상자들은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제외되길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역사 교과서에는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교육과정이 대강화되면서 집필자 스스로 선택한 내용 요소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고 검정에서 탈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권교사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규정성 자체는 교육과정이 쥐고 있기 때문에 ... 이전 교과서에 있으니까 넣죠. (생략) 다만, 빼지 않고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은 다른 장치들을 이용해서 집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읽기 자료라든지.

[신교사, 2차 면담]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해요. 좋은 교육과정이 있어야 좋은 교과서가 나오죠.

[권교사, 1차 면담]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 대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성과 집필 기준에 대한 억압감이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사 집필자 스스로 한계를 보여 교육과정의 긍정적 의미를 구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즉, 2007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해석과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역사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분석을 바탕으로 교재관을 설정하는 절차는 간략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현실적으로 개정 역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보다는 성취 기준에 집중하였다.

일단 심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내용 요소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 막상 기술을 하면서는 이런 것(성취기준)만 보는 거죠. 쓸 때는 다른 내용들은 필요치 않거든요. ... 사실 이런 말(교육과정 해설서의 성격,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이 멋지게 쓰여져 있지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김교사, 1차 면담]

또한 검정제도의 칼날 역시 큰 제약과 한계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검정 과정에서 교사 집필자의 의도가 꺾인 일도 있었다. 김교사는 교사가 수업할 때 실질적인 문제인 학사 일정과 수업 시

수를 고려하였다. 그는 1년 동안의 실제 수업 시수를 계산하여 중단원과 소단원을 설정하는 체제를 따르지 않고, 역사(상)을 85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지만, 검정 과정에서 수정 지시를 받았다.

5. 출판사의 상업성

출판사의 상업성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검정 제도의 한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출판사는 투자 자본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검정 심사 통과를 1차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하였다.

내가 내 색깔을 내면서 참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 기준들 안에서 아웃라인이 이미 다 잡혀 있었고,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출판사들이 전전긍긍 노심초사 손질을 많이 할 것이고 ...
[박교사, 1차 면담]

박교사가 언급한 제약의 핵심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는 검정 통과와 채택이라는 이중의 부담감 앞에서 집필자들에게 교과서의 안정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편집진들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집중하여 집필자의 원고에 개입하였다.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써주세요.'라고 요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 집필자가 준 원고의 표현들을 바꾸거나 내용 요소를 추가·삭제하기도 하였다.

박교사 경우는 교사 집필자들이 모여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동료 교사 집필자들에게 지지받으며 내용 요소를 정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박교사는 교사 집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출판사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때, 박교사는 교사 집필자의 역할이란 '새롭고 다양한 교과서, 내 생각이 반영된 교과서 제작을 위해 현장감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여러 제약과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그 장벽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타협의 결과는 박교사에게 좌절감이라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다.

Ⅵ. 맺음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사회과에서 역사 과목이 분리되었고, 검정제의 적용을 받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탄생하였다. 이로 인해서 역사교과서의 민간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집필자 수도 증가하였다. 집필자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집필진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교사 집필자 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 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여한 교사 집필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 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에 대한 것이지만, 역사 교과서에만 한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 작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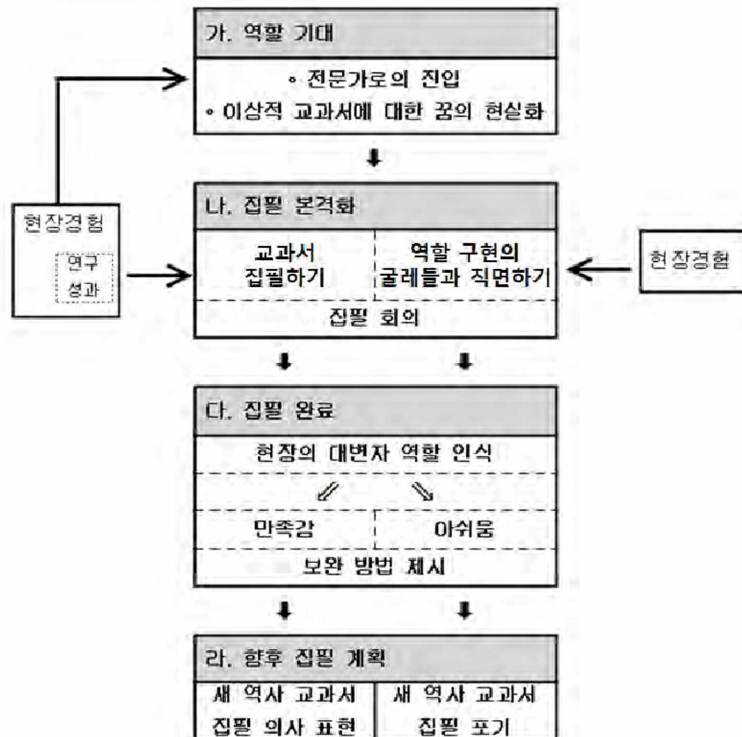
연구를 위해 역사(상) 교사 집필자 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 집필자의 역할과 그 구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교과서 집필 참여를 결정한 후 스스로 전문가로 진입하는 기대에 설렘을 느꼈고, 교단에서 꿈꿔왔던 교과서 제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벽차 있었다.

그러나 역할 기대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하면서 교사 집필자들의 역할 구현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쉽고 맥락 있게 서술하기', '아이들의 마음 읽어내기', '교실 현장 담기', '집필 회의 감당하기'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교과서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지만 교사 집필자들의 역할 구현은 곧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문적 전문성의 한계, 필력의 한계, 경험의 이중성, 교육과정의 규정성, 검정 제도의 한계, 출판사의 상업성 등의 부딪쳤다. 역사 교과서 집필이라는 고단한 과정 속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교수 집필자, 출판사 편집자, 교사 집필자들과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교사 집필자 역할을 '교수 집필자를 보완하고 출판사의 조력을 받으며 현장을 반영하는 대변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은 교사 집필자로서의 역할 구현에 대해 만족과 아쉬움의 감정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역사 교과서 집필을 통해 학문적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면에서는 만족하였으나, 역할 구현에 있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여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교사 집필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제작을 위해 애썼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로 인해 자신이 원하던 교과서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연구 대상자들은 만족과 아쉬움 사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세계사 편찬 위원회 설치와 교사 집필자 연구원 제도 실시 등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역사 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 과정

교과서 편찬 과정에 교사 집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제도가 바로 정착되지 않으면, 교사 집필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더라도 장벽에 부딪쳐 그들의 역할 구현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된다.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집필 기준이나 검정 기준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잦은 교육과정의 개편은 좋은 교과서 편찬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교사 집필자들의 교과서에 대한 고민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대상자를 역사교과서 교사 집필자로 한정하였고, 소수의 교사 집필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 집필자의 역할이 교수 집필자, 출판사 편집진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차후에는 연구 대상으로 교수 집필자와 출판사 편집진을 포함시켜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사의 교과서 집필 참여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인 역사 교과서와 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차후에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교과서 교사 집필자의 역할 구현이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공병혜, 박순애(2009). 질적 연구 인터뷰에 대한 철학적 배경. 질적연구, 10(2).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
적자원부.
- 김영천(1997). 네 학교 이야기: 한국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문음사
- 김원정(2008). 체육교육과정의 해석을 통해 본 체육교과서 구성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미, 신경숙, 이은화, 정명화, 허승희, 황희숙(2009). 질적 연구 실천 방
법. 교육과학사.
- 박인옥, 조국남, 최정윤, 최유리(2000). 제7차 사회과 교과서 편찬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편찬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인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1.
- 방지원(2009). 2007 개정 역사 교육과정의 교재관과 교과서 개발. 역사교육논집, 42.
- 양정현(2009). 역사 교과서 제도: 역사의 지식 생산, 유통, 소비의 매커니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이혁규(2005). 교과서 쓰기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8(1).
- Irving Seidman(이승연, 박혜준 역)(2009).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 John W. Creswell(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2005). 질적 연구 방법론. 학지사.

· 논문접수 : 2013-01-01/ 수정본접수 : 2013-02-04/ 게재승인 : 2013-02-22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Teachers in Textbook Writing Process : Focusing on th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Writing

Mi-Ran Park

(Teacher, Gwangjang Middle School)

Hyun-Sook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xact role played by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writing of *History(I)*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hole process through several interviews with them. The results show that before the actual writing, they had expected the experience to be an opportunity for them to become ‘experts’ and realize the ‘dream of writing an ideal textbook.’ However, during the actual writing, they, based on their classroom experiences, tried to design a textbook with specific activities such as ‘writing in an easy and coherent manner,’ ‘picturing the classroom, and ‘reading children’s minds.’

Some of the initial plans they had as textbook authors were modified because of certain constraints and limitations. The classroom experiences themselves, the publisher’s profit-oriented stance, the curricular regulations, and others functioned as restricting factors. Yet the teachers persevered with the difficulties and finally finished the writing. And they came to realize that their role is to assist the ‘professor-writers’ and provide actual classroom experiences with the help of the publisher.’ They also expressed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their expertise. They nonetheless felt a sense of frustration at the restraints on their role.

This paper only interviewed teacher participants. The exclusion of the professors and the editors from the interviewing process makes it hard for this study to show all the responses to the new environment of textbook writing. Further studies in this direction hopefully will ensue. This kind of studies will contribute to writing better textbooks.

Key Words : Historical Textbook, Teacher Author, Qualitative Research,
Perceptions of the Writing Process, Middle School